

## 2016년 브라질 지방선거 결과와 전망

임두빈 HK교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 주요 내용

- (정치 현황) 대통령 탄핵 후, 지방선거 1차 투표에 나타난 노동자당(PT)의 위기
- (원인과 분석) 브라질 국민이 우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늪은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대안을 모색하는 모습이 선거 결과에 반영
- (전망과 시사점) 13년간 노동자당(PT) 중심의 장기 집권을 통해 브라질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거친 브라질 사회의 또 다른 변화가 주목됨.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1

## 이슈 현황

### 2016년 10월 2일 치러진 지방선거 1차 투표결과에 따른 정치적 지각변동 예고

- 좌파진영이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을 ‘정치적 쿠데타’로 규정하고, 거리에서 ‘반 테메르 시위’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민심의 방향을 재확인하는 기회로 봄.
  -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전국 5,568개 도시의 시장·부시장(행정부)과 시의원(입법부)을 선출하며, 대선에 앞서 정치적 기반 다지는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음.
  - 대선과 마찬가지로 시장선거는 1차 투표 과반수 미 득표한 경우 2차 투표를 시행
  - 시의원은 무조건 다(多)득표자가 당선
- 2016년 지방선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개 정당이 참여
  - 1996년 24개 정당에 비해 정당 수가 45% 이상 증가함으로써 전문가들은 정당 난립으로 유권자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진단함.
- 테메르 정부에 대한 낮은 지지율과 룰라 전 대통령과 호세프 전 대통령의 좌파정당 지원유세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당(PT)의 참패, 테메르 대통령 소속정당인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의 완승
  -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이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1,028명의 시장 후보자를 당선시킴으로써 2018년 대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함.
  - 노동자당(PT)은 256명의 시장 당선자 확보에 그침. 638명을 배출했던 2012년 지방선거보다 60%로 축소됨.
  -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이 793명, 사회민주당(PSD)이 539명, 진보당(PP)이 493명, 브라질사회당(PSB)이 414명의 당선자를 배출
  - 지방선거 대패로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 이어 노동자당(PT)이 1980년 창당 이래 최대의 정치적 고비에 직면함.

그림 1. 2012년 지방선거 1차 투표 시장당선자 결과

(단위: 명)



자료 : TSE/infogram(검색일: 2016. 10. 3.).

그림 2. 2016년 지방선거 1차 투표 시장당선자 결과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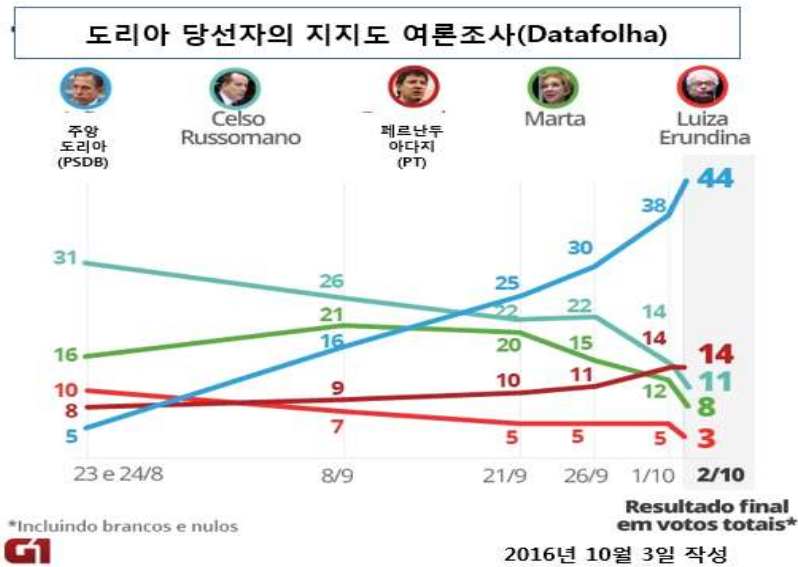


자료 : TSE/infogram(검색일: 2016. 10. 3.).

- 노동자당(PT), 브라질의 선거 최대 격전지인 상파울루 시장 당선자 배출에 실패
  - 사전 여론조사에서 도리아 후보의 당선이 예상되었음.

그림 3. 도리아 당선자의 지지도 여론조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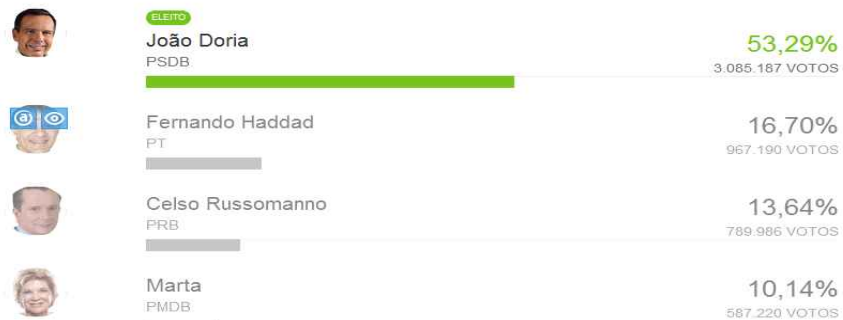
자료 : g1.globo.com(2016.10.3. 작성)

- 지난 노동당 집권 시기에 지지 기반이었던 상파울루 시에서 현직 시장인 노동자당(PT) 소속 페르난두 아다지(Fernando Haddad)후보가 룰라 전 대통령의 지원유세에도 불구하고 16.7%의 낮은 득표율을 얻음.
  - 개신교 목사 출신에 기업가로서 정치 신인임에 불구하고 53.29%를 득표한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의 주앙 도리아(João Doria) 후보에게 참패함.

그림 4. 상파울루시 시장선거 제1 투표 결과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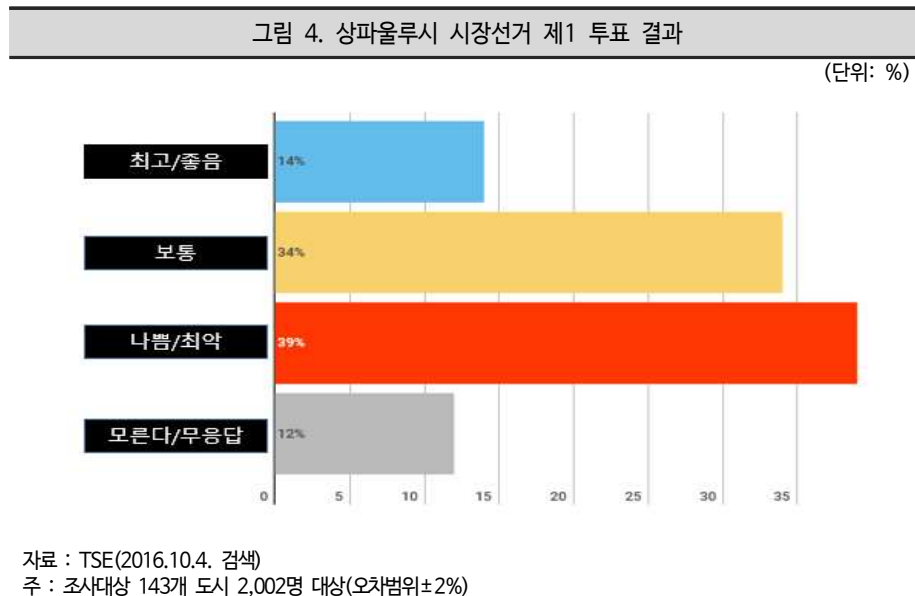
## PREFEITO

última atualização em  
21:53:52h de 02/10/2016

자료 : g1.globo.com

주 : 상파울루시 시장선거 제1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로 주앙 도리아(Joao Doria) 당선

- 도리아의 당선으로 그의 후견인인 제라우두 알키민(Geraldo Alkimin) 현직 상파울루 주지사의 2018년 대선후보의 입지가 강해짐.
  - 알키민 세력의 부상으로 같은 브라질사회민주당 소속으로 2014년 대선에서 강력한 대선 후보자였던 아에시우 네비스(Aécio Neves)와의 대선 후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의 약진으로 브라질민주운동당(PMDB)과 2018년 대선을 대비한 밀월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소속 정당인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의 지방선거 대승에 불구하고 테메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결과는 부정적으로 평가됨.
- 브라질 여론조사업체 이보페(Ibope)가 국가산업연맹(CNI)후 원으로 10월 4일 발표한 테메르 대통령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14%, 부정적 39%, 보통 34%로 나옴.



-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 7월 1일에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 지지도<sup>1)</sup>와 큰 변화가 없음.
  - 그러나 남부지역에서의 지지도가 12%에서 21%로 상승하였으며, 16~24세 사이 젊은 층의 지지도는 33%에서 38%로 하락세를 보임.
- 2012년 한인 동포 출마에 이어 2016년 상파울루 시의원 선거에도 한인 동포 4명이 출마해 브라질 한인 이민 역사상 첫 정치인 배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모두 낙선했음.

1) 긍정적 13%, 부정적 39%, 보통 36%로 조사되었음.

## 2 원인 분석

☒ 전문가들은 브라질의 오랜 경기침체 및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 스캔들에 분노한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13년간 집권당이었던 노동자당(PT)을 심판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2천5백만 명 이상(인구의 17.58%)이 이번 지방선거 1차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염증’ 또는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브라질 선거제도에서 투표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의무이며, 사전 신고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벌금이 부과됨.
-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의 대패는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사법 당국의 부패수사에서 돈세탁과 허위진술 등의 부패혐의로 다시 기소되면서 노동자당이 위기에 몰리게 된 결과로써 어느 정도 예견된 바임.
  - 상파울루 제돌리우바르가스재단 끌라우지우 꼬우투(Claudio Couto(FGV-SP))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대패 원인은 노동자당(PT)이 지난 집권기 동안 자기 적폐를 척결하지 못했던 것으로 진단했음.
  - 또한 호세프 대통령의 제2 집권기 실패의 원인을 탄핵 정국 외에도 정치경제 정책의 실패와 의회 장악 실패에 그 원인을 둠.
  - 노동자당(PT)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속 정치인들의 윤리적 일탈과 부정부패 의혹으로 인해 이미지 회복의 어려움에 있다고 분석함.
  - 그 반동으로 좌파가 아닌 무명의 정치인이 ‘낯은 정치’를 척결하는 구원투수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남.
-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 이은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연방검찰의 기소는 정치적인 결정으로 이뤄졌으며, 2018년 대선에서 룰라의 출마를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됨.
  - 더불어 이는 좌·우파의 특정한 정치적 노선이 없는 대부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어 결국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사법 당국의 정·재계 부패수사로 기업의 선거자금 지원이 어려워진 데다 호세프 전 대통령 탄핵의 영향으로 당세가 약화하면서 출마자가 급격하게 준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됨.
  - 2012년 지방선거의 1,759명보다 35.5% 줄어들었고, 1996년 지방선거 당시 1,077명 이후 20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함.

### 3 전망과 시사점

**이벤트** 이번 지방선거는 호세프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밀어낸 우파 성향의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정부에 대한 평가이자 2018년 대선과 총선을 앞둔 전초전 양상을 띤다.

- 브라질 내 5,560여 개 도시에서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는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임.
  - 지난 13년간 브라질의 집권당 자리를 유지해왔던 노동자당(PT)이 이번 선거에서 대패하고 상파울루 시장까지 브라질민주운동당(PSDB)에 내줌에 따라, 오는 2018년 대선과 총선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대두됨.
  - 상파울루 다음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리우데자네이루 시장 선거의 경우 1위 후보자의 득표율이 50% 미만에 그쳐 관련 규정상 10월 30일에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할 예정임.
  - 리우 시장 선거에서 브라질공화당(PRB) 후보가 28%, 좌파 자유사회주의당(PSOL) 소속 프레이소 후보는 18%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우파가 우세 형국임.
- 브라질민주운동당과 현 정부 내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테메르 대통령을 후보로 내세우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를 인식하는 듯 불출마를 고수하고 있음.
- 이미 유권자들에게 ‘낡은 정치’로 낙인찍힌 노동자당(PT)은 2003년부터 이어진 집권 기간의 실수를 반성하고 창당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자성론과 함께 2018년 대선을 앞두고 좌파 진영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 이번 지방선거의 노동자당의 대패는 단순히 노동자당(PT)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음.
- 상파울루 시민들이 무명 정치인 도리아를 상파울루 시장으로 선출한 이유에 대해 브라질 정치인들이 좌·우를 넘어 고민할 시기가 왔다고 분석됨.
  - 13년 동안 좌파에 내몰린 전통적인 우파의 ‘제국의 역습’으로 분석되기도 하지만, 개신교 목사에서 성공적인 사업가로 올라선 도리아(Doria)의 경우는 과거 우파의 뿌리이자 상징인 ‘꼬로넬(Coronéis)’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
  - 그러나 도리아 당선자가 최근 “모든 브라질 국민이 ‘폴로 랄프 로렌’ 브랜드의 옷을 입을 수 있는 날이 오게 하겠다.” 라는 발언을 해서 자질 논란을 빚고 있음.
- 좌파의 아이콘 격인 룰라 전 대통령은 일단 자신을 둘러싼 사법 당국의 부패 수사에 대응하고 좌파 진영의 활로를 모색하는 작업에 몰두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분간 좌파진영에서 2018년 대선 주자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임.

- 2018년 대선 및 총선의 열세가 전망되면서 노동자당(PT)의 소수당 전략과 상원 의석 상실이 예상
  - 상원의원의 임기는 8년, 총선 시기에 1/3을 선출하는 시스템
  - 호세프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보았듯이 브라질 정치에서 상원의 영향력은 막강한 편임.
  - 현재 노동당 소속 상원의원은 2010년 룰라 전 대통령 퇴임 시 선출된 10명이며, 그중 2018년 교체대상이 8명에 이르기 때문에 노동당으로서는 생사의 기로에 선 셈임.
-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며 국민의 지지도를 얻었던 노동자당(PT)이 스스로 비판의 대상이자 기득권이 되어버린 만큼 변질된 노동자당의 원래 가치와 존재 이유에 대한 획기적인 반성 없이 ‘포퓰리즘’으로만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교훈을 브라질 정치사에 남김. **EMERiCs**

#### 출처

Veja, Carta capital, Pragmatismo, Datafolha, Ibope, G1 및 현지 보도자료